

최초 EPL 득점왕 손흥민 '금의환향'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등극한 손흥민(토트넘)이 시즌 종료와 함께 국가대표팀 소집을 앞두고 24일 귀국했다.

손흥민은 전날 영국 노리치의 카로우 로드에서 열린 노리치 시티와 2021~2022시즌 EPL 최종 35라운드에서 리그 22·23호골을 터트리며 토트넘의 5-0 대승에 일조했다.

이 골로 손흥민은 정규리그 23골로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공동 득점왕이 됐다.

1992년 출범한 EPL에서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에 오른 건 손흥민이 최초다. 유럽 5대 리그로 불리는 EPL,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스 리그1, 이탈리아 세리에A를 통틀어서도 아시아 첫 득점왕이다.

손흥민은 "정말 믿을 수 없다. 어릴 적 꿈을 이뤘다. 쉬운 기회를 놓쳤지만 가장 어려운 기회에서 (골을) 만들었다. 포기하지 않았고, 동료들이 날 도왔다. (앞둔 부츠가) 정말 무겁다. 내겐 최고의 날"이라며 활짝 웃었다.

손흥민이 득점왕에 오르면서 한국

오는 30일 국가대표 소집 앞두고 귀국
A매치, 2경기만 더 치르면 100경기 달성



아시아 선수 최초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이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골든부트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은 EPL 역사에서 최고 골잡이를 배 앞서 잉글랜드(9명), 네덜란드(3출한 13번째 나라가 됐다. 명), 프랑스, 아르헨티나(이상 2명),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불가리아, 가봉, 포르투갈, 세네갈,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루과이(1명)에서 득점왕이 나왔다.

소속팀 토트넘이 차기 시즌 유럽 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 출전권까지 획득하면서 손흥민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고국 땅을 밟는다.

손흥민은 대표팀에 승선, 다음 달 브라질(2일), 칠레(6일), 파라과이(10일)와 국가대표 평가전에 나선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30일 벤투호 소집에 응할 예정이다.

특히 브라질전에선 세계적인 공격수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와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이 득점왕을 차지한 건 좋은 성취다. 축하한다. 득점왕에 오른 것은 본인에게 중요하고, 소속팀과 한국 축구에도 중요한 사건"이라며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모두 행복한 마음"이라고 축하를 건넸다.

A매치 98경기(31골)에 출전한 손흥민은 2경기만 더 치르면 100경기, 센추리클럽에 가입한다.

/뉴시스



여자축구 간판 지소연, 수원FC 위민 입단 영국에서 돌아온 한국 여자축구의 간판 지소연(31)이 국내 실업리그 WK리그 수원FC 위민 유니폼을 입는다. 수원FC 위민은 24일 지소연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소연이 WK리그 팀에서 뛰는 건 처음이다. 오주중-동상진사고를 거쳐 한양여대를 졸업한 지소연은 2010년 일본 고베 아이낙에 입단했다. /뉴시스

제61회 전남도체육대회 폐막... '순천시 종합우승'

수영 4관왕 여수 김민섭 MVP...전남 스포츠 대제전 마무리



코로나19 관련으로 3년만에 열린 '가자 순천으로! 즐거자 전남제전'이라는 대회 구호 속에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순천에서 펼쳐진 '제61회 전남도체육대회'가 순천시의 종합우승으로 폐막했다.

이번 제전은 육상, 축구, 소프트테니스 등 22개 정식종목과 축구, 게이트볼 2개 전시종목 총 24개 종목에서 순천팔마종합운동장과 팔마국민체육센터 등 28개 경기장에서 70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그 동안 같고

뒤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번 대회에서 순천시는 총점 43,735점을 획득하여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3만6275점을 획득한 여수시가 준우승, 3만2025점을 획득한 영암군이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순천시는 2006년 제45회 대회 이후 16년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해 우승기를 휘날렸다.

수영에서 4관왕을 차지한 여수시 김민섭 선수가 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입장상에는 완도군, 모범선수단상에는 진도군, 성취상에는 무안군이 선정됐다. 대회기와 패넛트는 내년 제62회 전남도체육대회 개최지인 완도군으로 인계됐다.

손점식 순천시 부시장은 "대회가 간 선수들이 보여준 정정당당하고 열정적이며,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된 모습에서 200만 전남도민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헤쳐갈 희망을 보았다"며 "여러분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하며 더 큰 성취를 이루시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상대 순천시체육회장은 "순천시가 16년만에 제61회 전남제전에서 종합우승을 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기업과 순천시체육회 발전위원 도움주신분들, 출전 종목 선수 및 임원께 감사드리며 수고해 주신 관계기관 모든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KIA 소크라테스 득녀 "자랑스러운 아빠 되겠다"



5월 들어 반등에 성공한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30)가 곁경사를 누렸다.

KIA 구단은 24일 "소크라테스의 부인 로사이다 펠리스가 지난 22일 도미니카공화국 아수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건강한 여자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소크라테스는 "아빠가 되는 날을 상상하고 기대했는데, 이렇게 아빠가 되니 행복하다"며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아빠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시청 장애인양궁, 전국대회 '우승'

총 21개 메달 수확...국가대표 선발 가능성 높아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이 전국대회에서 21개의 메달을 수확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장애인체육회는 계양아시아드양궁장에서 막을 내린 '2022년 국가대표인양궁종별대회·2023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광주시청이 금메달 1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 등 총 21개의 메달을 수확했다고 24일 밝혔다.

양궁 국가대표 김옥금은 컴파운드(w1) 여자부에서 금메달 5개, 조장문은 리커브 여자부와 혼성종목을 거둬 앞으로 대회에서도 메달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영은 컴파운드 여자부 및 혼성종목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

개, 동메달 1개로 전국 최강을 과시했다. 김란속도 리커브 여자부 및 단체전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이번 대회에서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은 좋은 성적을 거둬 다음달 열리는 3차전과 9월 4차전에서 국가대표 선발 가능성을 높였다.

안형승 광주시청 장애인양궁감독은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 앞으로 대회에서도 메달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자

중고채 사고팔면 골마켓 광주 일곡점

골마켓 광주 일곡점

각종브랜드 골프클럽/용품 판매

최고피팅

골마켓의 정교한 피팅

최고시설

최신식 분석 장비 완비중

최저가격

중고채 사고팔면

광주 북구 연양로 155

영업시간 AM 09:30 ~ PM 20:00
주말/공휴일 AM 09:00 ~ PM 19:00

062.575.5456